

수원시 신중년-노동자복지센터 이모작 준비 구 직·근로자들에 노무 상담 등 통합지원 '맞손'

안경환 기자 | 승인 2024.06.24 | 6면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는 지난 21일 수원시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와 '수원시 신중년 통합 서비스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3일 알렸다.

협약식에는 이영희 수원시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이희원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장을 비롯한 양 기관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수원시 신중년 인생이모작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 운영 ▶신중년 근로자·구직자를 위한 노무·법무 분야 전문상담 연계 ▶양 기관 추진사업에 대한 적극 홍보에 협력한다.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는 이날 기초사업으로 신중년 근로자 2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을 했다.

교육은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등 노무 관련 내용으로 구성했고, 이후 주기적으로 노무상담을 진행해 신중년들의 노동권리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이 새로이 노동환경에 진입하고자 준비하는 수원시 신중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원시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